

인천서 '세계 원자력 최고 권위 대회' 열린다

2029년 'SMiRT 30' 송도 개최 확정 시·관광공사, 상하이 제치고 유치 쾌거 세계적 학술 교류... 전문가 1000명 참가

세계 원자력 구조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인 '제30차 세계원자력구조 공학회 학술대회'가 2029년 8월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7일간 개최된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7일 중국 상하이로 제치고 'SMiRT 30' 유치를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한국원자력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치 제안서 작성부터 유치 비딩 및 개최계획 발표에 직접 참여 등 다각적인 노력이 유치 성공을 이끌었다.

세계원자력구조공학회 학술대회는 1971년 독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원자력 분야 대표 학술회의이다. 대회마다

50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기계·토목 등 구조공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최근 인공지능(AI) 발전과 전력 수요 증가로 원자력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등 'K원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인천 대회에는 1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유치는 10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SMiRT 28 현장에서 진행됐다. 학회와 공사는 국내 원자력 네트워크와 MICE 개최 최적지로서의 장점,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의 강점을 부각했다.



제30차 세계원자력구조공학회 학술대회가 2029년 8월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개최된다. SMiRT30 개최계획 발표 모습.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의 뛰어난 접근성과 관광자원, 웰컴 셔틀 등 환대 서비스와 지역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의지도 강조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인천은 중국 상하이로 제치고 'SMiRT 30'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AI 산업의 심장으로서 불리는 원자력의 구조공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대회 유치는 인천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축적된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를 마이스 총아로

글로벌 거점 육성 본격화... 제2회 트래블마트 개최 해외 구매자 초청 상담·패투어 등 다채롭게 마케팅

인천광역시가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ICCC)를 글로벌 마이스(MICE)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회의 지원과 비즈니스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천회의에 맞춰 인천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열리아인스(IMA)와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집적시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환영메시지 송출, 웰컴키트 제공, 전용 순환 셔틀버스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 'APEC 홍보관 내 ICCZ 부스'를 운영해 국제적 역량을 현장에서 선보였다.

이에 인천시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회 ICCZ MICE 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구매자와 기업 관계자

들에게 차별화된 기회다.

이번 비즈니스 기회 제공은 인천의 MICE 산업 경쟁력을 집중홍보하는 자리로 행사에는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 9개국에서 온 해외 구매자 30여 명과 MICE 관련 기업 50여 개사가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복합지구 내 주요 시설 인스펙션 및 환영 행사(9월2일) △기업 간 거래(B2B) 상담회와 인천 MICE 설명회(9월3일) △강화도·영종도 팸투어(9월4·5일)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내달 말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비해 인천시

는 관광, 숙박, 쇼핑 인프라를 점검하고 해외 관광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인천의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높였다"며 "제2회 마이스 트래블마트를 통해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인천시가 내달 2일~5일까지 '제2회 국제회의복합지구 마이스 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 홍보관, 인천시



강재규 기자 jkang@skyedaily.com



성남시가 올해 세번째 추경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

안산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박차

컨설팅 제공 등 적극 행정 용도변경 신청·신고 유도

경기도 안산시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1월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특별조치 '생숙지원 전략 태스크포스(TF)팀'을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설치한 뒤 지속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 '생숙지원TF팀'은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신청 절차와 법적 의무를 안내

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생숙 소유주 및 관리단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뉴스카드 제작 △안산시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 6개 매체) 업로드 △시청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 홍보활동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이달 8일 소병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안산시는 이러한 지원방안에 발맞춰

반달섬에 소재한 생숙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의 용도변경(2493실)을 5월26일 자료 사용승인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용도변경 사례로도 주목받았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내달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알레산드로 멘디니 108번뇌 2009. 경기도자미술관 소장.

한국도자재단

"동서양 거장 협업 '108번뇌' 보러 오세요"

경기도자미술관, 연말까지 '올해의 소장품전' 열어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이 연말까지 경기도자미술관 2층 특별실에서 '올해의 소장품' 전시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뮤지엄x만나다' 사업에 연계한 전시회다.

전국 박물관·미술관이 소장한 문화 자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자미술관이 내놓은 것은 동서양 거장의 협업 작품 '108번뇌'.

이 소장품은 스승계적인 이탈리아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대표작 '푸르스트 의자'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고 대한민국 근현대 청자 명장 고 유근형이 설립한 해강고려청자연구소의 '전통 고려청자 기법'으로 재해석해 제작됐다.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 수공예와

디지털의 결합을 통해 '108번뇌' 소장품이 지닌 현대 청자의 독창적 미감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으며 관람객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뮤지엄x만나다'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관 방문 인증 이벤트'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50개 박물관·미술관에서 선정된 소장품을 관람하고 홍보물을 인증 도장을 모으면 에어팟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돼 전시 관람의 흥미와 참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소장품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관람객들이 도자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자미술관은 현대 도자 작품을 폭넓게 함유할 수 있도록 고품격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 jkang@skyedaily.com

광명시, 중소기업 수출 돕는다

경기도 광명시가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28일 광명시에 따르면 총 8000만 원 규모의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수출물류비 △온라인 마케팅 두 분야에서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는 두 사업에서 각각 12개 기업을 선정해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운송비, 보관료, 통관료 등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총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경기도 광명시가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광명시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글로벌 기업간 거래(B2B) 마케팅, 외국어 홍보물 제작, 글로벌 누리소통망(SNS) 광고 등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는 지역 중소기업

8000만 원 투입... 판로개척 12곳 경쟁력 강화 맞춤형 지원

업의 든든한 파트너로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의 수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수출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과 홍보역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말까지 과제 완료 기업에 대한 정산과 사업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에 올해 성과와 기업 수요를 반영해 확대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굴포천역 공공주택 사업 시동 iH, 상업시설 가이드라인 반영

인천도시공사(iH)가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리드 복합사업참여 공모를 공고하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공사는 2023년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된 본 사업은 단순한 공공주택 공급 차원을 넘어 역세권 개발과 상업공간을 결합한 복합 단지로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상업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굴포천역과 직접 연결되는 '선린형 광장(주변보다 낮게 조성된 야외광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린형 광장'을 통해 지상과 지하 공간이 입체적으로 연계되고 장제로변 연도형상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상권의 상징성과 활력을 높일 전망이다.

iH는 '선린형 광장'을 단순한 보행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집객 시설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와 생활 편의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iH 관계자는 "본 사업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복합거점으로 조성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